

모의논술고사 문제 및 해설

2019

1. 문항 및 제시문

(가)

“사모아에서 성장을 쉽고 간단한 문제로 만드는 배경은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평상적이라는 것이다. 누구도 크게 성공하려고 모험을 하지 않으며,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곳이 사모아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는 자식이 길 건너편으로 이사하면 해결되고, 주민과 마을 사이의 불화는 그 주민을 옆 마을로 추방하면 끝나며 사랑과 미움, 질투와 보복, 슬픔과 사별은 모두가 몇 주를 넘기지 않는다.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여러 여성들의 손을 거쳐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한 개인을 지나치게 돌보지 말고 어느 관계에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는다.”

-마거릿 미드,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위의 인용된 부분에 따르면, 사모아 사회는 평상적이고 평화롭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공이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강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령 갈등이 생기더라도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기보다는 갈등의 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며, 극단적인 감정적 상태는 기피된다.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서구 사회에서처럼 아이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를 쏟아부어 아이의 자아에 큰 부담을 주는 일도 없다.

이렇듯 사모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으므로 사모아의 사춘기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다. 이는 당시 서구의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진로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에 반항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거나, 자유분방한 삶을 포기하고 내키지 않는 삶을 살거나 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은 점과 대조를 이루었다.

(나)

100여 년 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통해 집단에 속한 각 개인들의 공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2명, 3명, 8명으로 이루어진 각 집단은 200, 300, 800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잠재적인 기대치의 93퍼센트, 3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85퍼센트, 8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겨우 49퍼센트의 힘의 크기만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링겔만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집단 내의 구성원 스스로가 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단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고 여기거나 자신이 없어도 집단의 운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은 자명합니다.

(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뽐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1. 제시문 (가)와 (다)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400~500자,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를 비판하라. (1,100~1,200자,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출제 의도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 능력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문항 1>은 두 제시문에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파악하고 두 관점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문제이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제시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관을 서로 비교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 2>는 두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한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먼저, 주어진 제시문 (가)에서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관점과 주장을 파악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가)의 관점과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논거를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전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핵심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력, 의미를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서로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제시문들을 주어진 관점 및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신의 사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 등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갖추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대학교 모의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고교 교과과정을 이행한 중간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출제근거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독서와문법, 화법과작문,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독서와문법] -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2. [독서와문법] -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3. [독서와문법] -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4. [독서와문법] -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5. [화법과작문] -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6. [화법과작문] -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7. [화법과작문] - 핵심 정보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8. [국어 I] -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 9. [국어 I] -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10. [국어 I] -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과목명: 독서와문법	관련
성취 기준 1	[독서와문법] -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10418-2.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추론의 원리로서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와 독자의 배경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도록 한다.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글의 내용을 읽어 필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해낸다.	(가) (나) (다)
성취 기준 2	[독서와문법] -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10419-2.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 필자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한 편의 글을 내용의 타당성, 관점의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 등 여러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는다. 한 편의 글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읽는다.	(가) (다)

관련 성취기준

성취 기준 3	[독서와문법] -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성취기준 310421-1.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다)
	글 읽기가 개인적·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취 기준 4	[독서와문법] -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성취기준 310422-1.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가) (나) (다)
	310422-2.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같은 문제를 다룬 복수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비판적 읽기의 기초로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복수의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실제로 형성한다.	
과목명: 화법과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화법과작문] -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성취기준 310321-1.설득 담화를 듣고 상대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할 수 있다. 310321-2.설득 담화를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	(가)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박해 본다. 비판적 논증을 재구성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성취 기준 2	[화법과작문] -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성취기준 310320-1.토론 논제의 필수 쟁점을 도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310320-2.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할 수 있다.	(가)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 담화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성취 기준 3	[화법과작문] - 핵심 정보를 파악하며 듣고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성취기준 310310-1.담화를 듣고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 (나) (다)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효과적으로 질문해 본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국어 I] -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31017-1.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 과정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가) (나) (다)
	작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내용이다. 글을 쓰는 데 작용하는 작문 과정의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성취기준	<p>성취 기준 2</p> <p>[국어 I] -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31014-2.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p> <p>독서가 개인의 능동적인 사고과정이라는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독서를 수행하는 성취기준이다. 글을 읽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p>	(가) (나) (다)
	<p>성취 기준 3</p> <p>[국어 I] -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성취기준 31019-2.글의 목적, 주제, 독자, 글의 관습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표현기법과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p> <p>표현 기법과 문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글을 쓰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기법과 문체 등에 대한 이해하고, 글의 목적과 주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과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쓴다. 고쳐 쓰기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글을 고쳐 쓰도록 한다.</p>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박영목	천재교육	2014	240-241		재구성 없음
화법과 작문	이삼형	지학사	2014	153		재구성 없음
국어 I	김종철	천재교육	2014	238		재구성 없음

4.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어I-(31014)]에 따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독서와 문법-(310418)]에 따른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 능력’과 [독서와 문법-(310422)]에 따른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 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에 대한 글과 누구의 인생에나 있는 가시 같은 괴로움에 대한 글을 읽고, 두 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생관을 비교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유추하고, 두 제시문의 서로 다른 인생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문항 2>는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310419)]에 따른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과 [독서와 문법-(310421)]에 따른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국어I-(31017)]에 따른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에 대한 이해’와 [화법과 작문-(310320)]에 따른 ‘논제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을 구성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사모아의 사춘기에 관한 글에서 사모아 사회와 사모아인들의 삶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링겔만 효과를 언급하며 집단 내에서 구성된 스스로가 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과 누구의 인생에나 있을 수 있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태도에 관한 글을 활용하여 비판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쓰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필자로서의 논지를 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를 재해석하여 특정한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도록 고안한 것이다.

5.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분석 및 이해력(차이점 서술)		140	200	600
	표현력		30		
	정서법		30		
	분량미달 감점		-20 ~ -80		
2번 대문항	이해력(요약)		80	400	
	비판적 사고력	(나) 활용 비판	110		
		(다) 활용 비판	110		
	구성력		40		
	표현력		30		
	정서법		30		
	분량미달 감점		-20 ~ -80		

6.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와 (다)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400~500자)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을 핍박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모험과 희생, 투쟁과 갈등, 극단적인 감정 등을 피하는 사모아 사회를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 즉 평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다)에서는 화가 로트레크의 삶을 통해 모험과 갈등 그리고 고통의 감정이 어떻게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며, 그 때문에 비록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415자)

2.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를 비판하라. (1,100~1,200자)

제시문 (가)는 사모아의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사회문화에서 사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고 쉽게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기에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제시문 (가)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모아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만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링겔만 효과’는 바로 이점을 환기시켜준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서 협업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이 실험은 개인이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삶의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과 승리를 향한 모험과 투쟁,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은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경쟁과 갈등이 없기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삶의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없는 평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사모아 사회는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다. 제시문 (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가 로트레크의 삶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인생의 가시가 실상은 인생을 한 단계 고양시켜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던 로트레크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 신체적 장애는 경쟁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그에게는 분명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인생의 아픈 가시였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능에 좀더 집중하고 노력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시문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모아 사회는 경쟁사회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투쟁과 갈등 그리고 고통이 갖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모아처럼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121자)